

런던
국립미술관
소장품
언론 자료



도입

런던 국립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유럽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중세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2,300여 점의 그림이다. 티치아노, 모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반 고흐 등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부터 프랑스 인상주의자의 그림까지 서유럽 작품의 주요 전통을 골고루 담고 있다.

다른 주요 국제 미술관과 달리 런던 국립미술관은 황실 소장품이 아닌 기증품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 1823년에 풍경화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인 조지 부몬트 (George Beaumont) 경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런던 국립미술관의 첫 작품은 은행가이자 수집가인 존 앵거스타인 (John Julius Angerstein)이 내놓았다. 1824년에 영국 하원의사당이 클로드, 렘브란트, 반 다이크 등이 그린 앵거스타인의 그림을 구매했다. 런던 국립미술관 설립자들은 화가 지망생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영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미술관을 만들고자 했다. 현재까지도 런던 국립미술관은 초창기의 목표인 국가가 보유한 미술 작품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 및 관리하고 일반인들이 무료로 관람하도록 한다는 초창기 목표를 계속 존중한다.

미술관이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관람객 모두에게 편리하다. 런던 시민은 물론 영국 전역과 해외에서 매년 5백만여 명이 미술관을 찾는다. 미술관에서는 임시 전시, 워크숍, 대담, 강의는 물론 금요일마다 실시되는 야간 개장까지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끊임 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매나 대여, 국가 기증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 들어와 소장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소장품 자체는 물론 관람객의 변화하는 수요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면 관람객은 동선 관리와 휴식, 먹거리 등에 대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소장품 개관

13~15세기

두치오, 우첼로, 반 에이크, 리피, 만테냐, 보티첼리, 뒤러, 멤링, 벨리

현존하는 중세 후기 작품 대부분이 종교를 주제로 하며 교회 제단이나 사설 기도 공간용으로 그려진 것이다.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금박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15세기에는 초상화와 고대 역사 및 신화를 담은 장면이 중요시되었다. 사실주의 또한 성스러운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설득력 있는 건축물이나 풍경 속에 조형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유화 물감과 같은 기술적 진보로 얼굴 표정과 표면 질감을 묘사하는 방법이 더욱 정교해졌다.

16세기

레오나르도, 크라나흐, 미켈란젤로, 라파엘, 홀바인, 브뤼헬, 브론치노, 티치아노, 베로네제

이 당시를 주도했던 화가들의 명성은 지금껏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화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화가들과 견주어 이들을 능가하려 했다. 초상화가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고대 역사와 신화 그림은 기독교 주제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예술성은 물론 주제로도 그림의 가치를 인정 받았고 특별히 마련된 갤러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카라바조, 루벤스, 푸생, 반 다이크, 벨라스케스, 클로드, 렘브란트, 코이프, 베르메르

당시 예술가들 중에는 과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 한편 화려함에서 소박함까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항상 간직하려 했다. 종교 주제는 보는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취급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물화, 풍경화는 물론 우아한 사교 모임에서부터 술집에서의 활기 넘치는 장면까지 담은 일상화 등의 전문 작품을 그린 화가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

18세기~20세기 초

카날레토, 고야, 터너, 컨스터블, 앵그르, 드가, 세잔, 모네, 반 고흐

교회와 왕실을 위해 웅장한 작품을 그리는 경우가 계속 있었지만 미술품 매매업자와 대중 전시를 통해 거래되는 소규모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더 흔해졌다. 19세기에는 미술 운동 (비슷한 스타일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의 비격식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공인된 예술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독립 예술가들의 생각도 이와 함께 했다.

간략한 소장품 소개

- 1824년** 런던 국립미술관이 소장한 첫 그림은 은행가이자 수집가인 존 앵거스타인 (John Julius Angerstein)이 내놓은 것이다. 4월 2일 영국 하원은 38점의 작품 구매를 위한 6만 파운드 예산을 표결에 부쳤다. 여기에는 대형 제단화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움보의 *라자로의 부활*을 비롯한 이탈리아 작품은 물론 네덜란드, 플랑드르, 잉글랜드파의 대표적인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 1826년** 1823년에 풍경화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인 조지 부몬트 (George Beaumont, 1753–1827) 경이 전시와 보존에 적합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림 기증은 1826년에 이루어졌다. 앵거스타인의 그림과 함께 부몬트 경의 그림은 팰말 (Pall Mall)에서 전시되다가 1838년에 소장품 전체가 트라팔가 광장으로 옮겨졌다. 부몬트 컬렉션에는 렘브란트의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 루벤스의 *이른 아침의 햇 스테인 풍경*, 카날레토의 *석공의 작업장*, 데이비드 월키의 *눈 먼 바이올린 연주자* (마지막 작품은 이제 테이트 컬렉션에 속한다) 외 다수의 클로드 작품이 있다. 부몬트는 자신이 아끼던 클로드의 *하갈과 천사가 있는 풍경*이 너무나 그리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시 빌려다 두었다고 한다.
- 1826년** 영국 정부는 카라치의 *아피아 가도에서 성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푸생의 *판의 조상 앞에서의 바쿠스제*, 티치아노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 1831년** 윌리엄 홀웰 카 목사가 틴토레토의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 렘브란트의 *개울에서 목욕하는 여인* 등의 주요 작품을 기증했다. 그는 자신이 기증한 그림의 보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팰말가 100번지가 철거를 앞두고 있다. 건축가 내시가 내놓은 채링 크로스 지역 개발 계획이 자금 부족으로 보류되었다.
- 1837년** 컨스터블의 *옥수수밭*을 후원자가 기증했다.
- 1838년** 소장품을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월킨스의 새 건물로 이전시켰다.
- 1855년** 찰스 이스트레이크 (Charles Eastlake) 경이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이사회에 도움을 받아 작품의 총괄과 관리를 맡았다.
- 신임 관장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구매했다. 관장직을 맡은 지 10년째가 되었을 때 이스트레이크 경은 런던 국립미술관의 이탈리아 작품 컬렉션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스트레이크 경이 구매한 작품에는 보티첼리의 *왕들의 경배*와 우첼로의 *산로마노의 전투*가 있었다.
- 1856년**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는 *전함 테메레르*, *금성*, *비*, *증기*, *속도 - 대 서부 철도* 등의 그림, *소묘*, *수채화* 등을 런던 국립미술관에 남겼다.
- 1871년** 후임 관장인 윌리엄 복살 (William Boxall)은 7만 5천 파운드로 필 (Peel) 컬렉션에서 77점의 그림을 매입하는 등 화려한 행보를 보였다.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과 루벤스의 *"밀짚모자"* 등 주로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그림으로 구성되어 전체 소장품 범위를 한 차원 넓히는데 기여했다.

- 1897년** 영국 예술 국립미술관 (현 테이트 브리튼) 개관. 영국 화가의 작품이 런던 국립미술관에 대량으로 투입되었고 대부분 밀뱅크 (Millbank)로 이전하였지만 일부 영국산 걸작은 트라팔가 광장에 남겨졌다.
- 1905년** 예술기금이 런던 국립미술관을 위해 4만 5천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고 다른 구매자들을 앞질러 벨라스케스의 '거울의 비너스'를 지켰다.
- 1910년** 조지 솔팅 (George Salting) 유산: 네덜란드, 플랑드르,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된 대규모 컬렉션. 현재까지 런던 국립미술관이 받은 기증품 중 최대 규모로 192개 그림이 들어왔고 이 중 164개를 간직하고 있다.
- 1914-18년** 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7년에 소장품을 스트랜드 (Strand) 지하철역에 보관했다.
- 1918년** 휴 레인 유산으로 르누아르의 우산을 포함한 33점의 인상주의 작품이 제공되었다. 이 기증 작품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휴 레인 미술관과 공유한다.
- 1924년** 사무엘 코톨드 (Samuel Courtauld)가 기부한 5만 파운드로 쇠라의 목욕하는 사람들과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구매하였다. 몬드 (Mond) 유산은 갤러리가 받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기증으로 라파엘의 십자가형 등 42점의 그림이 포함되었다.
- 1939-45년** 2차 세계대전: 소장품을 웨일스에 있는 마노드 (Manod) 채석장에 보관하였다.
- 1962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자 드로잉을 예술 펀드와 기부금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였다. 본 작품의 구매 후 25만여 명이 4개월 만에 관람하고 많은 이가 기부금을 냈다.
- 1985/6년** 존 폴 게티 주니어 (폴 게티 경)가 5천만 파운드를 런던 국립미술관에 기부했다.
- 1999년** 데니스 마혼 (Denis Mahon) 대여: 저명한 미술사학자이자 수집가인 전 런던 국립미술관 이사, 마혼은 자신이 소장한 이탈리아 바로크 그림 28점을 장기 대여해주었다. 이들 중에는 귀도 레니, 도메니키노, 루카 조르다노, 요한 리스 등 거장들의 작품이 있었다.
- 2004년** 문화유산복권기금 (HLF), 예술기금 (울프슨 재단 기부 포함), 런던 국립미술관 미국 친구들 (American Friends of the National Gallery), 조지 부몬트 그룹, 크리스토퍼 온다체 (Christopher Ondaatje) 경, 국민 모금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라파엘의 분홍빛 마리아를 구매하였다.
- 2006년** 사이몬 세인즈베리의 유산인 그림 5점이 런던 국립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여기에는 아르장퇴유의 설경과 수련, 지는 해 등 2점의 모네 작품과 창문 앞에 놓인 과일 접시와 큰 잔의 폴 고갱 작품이 있다.
- 2009년** 스코틀랜드 정부와 국립문화유산기금, 모뉴먼트 트러스트 (Monument Trust), 예술기금 등의 협조와 국민 모금 등을 통해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과 함께 티치아노의 디아나와 악타이온을 5천만 파운드에 구매하였다.
- 본 그림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과 런던 국립미술관이 공동 소유하고 각 기관에서 5년씩 차례대로 전시된다.
- 2012년**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과 런던 국립미술관은 문화유산복권기금, 예술기금, 모뉴먼트 트러스트 등이 제공하는 소중한 자선 기금은 물론 친절한 개인 독지가와 이사들의 후원으로 또 다른 티치아노의 걸작인 디아나와 칼리스토를 구매하였다.

건물 소개



팔멜가 100번지에 위치한 런던 국립미술관

1824년 최초 소장품

1824년 4월에 영국 하원이 은행가인 존 앵거스타인이 소장한 그림을 6만 파운드에 구매하는데 합의했다.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소유 컬렉션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목적에서 앵거스타인의 그림 38점을 구매하였다. 1824년 5월 10일 새 런던 국립미술관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전용 갤러리 건물이 건립되기 전까지 팔멜가 100번지에 있던 앵거스타인의 집에서 그림을 전시하였다.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의 숫자인 2만 4천여 명이 첫 6개월 동안 방문했다. 영국 정부를 위해 이 그림들을 감정하던 윌리엄 시거 (William Seguer)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파리의 루브르와 같은 다른 국립 미술관과 비교하여 건물의 규모가 초라하여 언론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1831년 부지 발견

1831년에 영국 의회는 런던 국립미술관 건물을 윌리엄 윌킨스 (William Wilkins)가 설계하고 트라팔가 광장에 짓는데 합의하였다. 갤러리가 들어설 최적의 위치에 대한 토의가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중심 위치에 자리하여 접근성이 좋은 트라팔가 광장이 선정되었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이전 킹즈 뮤스 (King's Mews)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윌리엄 윌킨스는 런던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때 뮤스 건물에 쓰인 건축 방식 다수를 활용하였다.



킹즈 뮤스 자리에 위치한 런던 국립미술관

1826년에 근처에 있던 섭정 왕자의 이전 관저인 칼튼 하우스 (Carlton House)가 철거되었지만 우수한 디자인을 자랑하던 기둥은 보존되었다. 윌킨스는 새 국립미술관 건물에 사용할 기둥 8개를 선택하였다. 막상 시간이 되자 기둥을 중앙 포르티코에 쓰기엔 너무 작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국 동쪽과 서쪽 포르티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윌킨스 설계도 판화, 런던 국립미술관 - 채링 크로스, 1927년경

1838년 런던 국립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런던 국립미술관의 신규 건물이 마침내 1838년에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개관되었다. 영국왕립미술원도 신규 건물의 동관에 자리 잡았다. 웅장한 중앙 계단이 서관에 있는 미술관과 동관의 미술원을 분리한다.

1868년에 왕립미술원이 피카딜리에 있는 새로운 자체 건물로 옮겨 가자 런던 국립미술관에 여유 공간이 생겼다.



런던 국립미술관 내부, 1876년

1876년 신규 건물 확장

런던 국립미술관 건물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1868년에 건축가 E.M. 배리 (E.M. Barry)에게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미술관 전체를 재건할 설계도 제출을 요청했다.

오랜 토의 끝에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전시관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1876년에 새 건물이 완공되자 화려한 돔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시실 7개가 동단에 추가되었다.



완공된 새 갤러리, 1910년

1896-7년 국립초상화미술관 이전, 테이트 갤러리 개관

국립초상화미술관이 1857년에 개관되었다가 1890년에 런던 국립미술관 뒤편에 새 보금자리를 찾은 후 1896년에 신규 건물로 개관하였다. 테이트 갤러리가 그 다음 해 개관하여 런던 국립미술관 내 영국 화가의 작품은 물론 헨리 테이트 (Henry Tate) 경이 소유한 작품까지 수용했다.

1911년 신규 추가

런던 국립미술관 이사회는 미술관의 확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했다. 런던 중심에 위치한 당시 부지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결국 1907년에 미술관 뒤에 있던 허름한 건물들을 정리하고 신규 전시관 다섯 동을 짓기 시작하여 1911년에 개관하였다.

1928-1933년 모자이크

러시아 태생 예술가인 보리스 안렘 (Boris Anrep, 1883-1969)에게 의뢰하여 대현관의 통로에 '삶의 노동'과 '삶의 기쁨'을 묘사하는 두 개의 모자이크 보도를 깔도록 하였다. 1952년에 안렘은 '현대의 미덕'이라고 하는 세번째 보도를 깔았다. 이 작업을 통해 탄생한 모자이크는 바쁜 공공 장소를 오가는 이들의 발 밑에 깔려 일상의 삶을 기린다.



안렘 모자이크



폭격을 맞아 부서진 런던 국립미술관 지붕

1939-45년 2차 세계대전

1939년 8월 23일 수요일, 언제 다시 개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런던 국립미술관이 문을 닫았다.

전쟁 기간 동안 소장품 전체를 웨일스 마노드에 있는 슬레이트 채석장으로 대피시켰고 갤러리는 1940년 폭격으로 손상되었다.

오랜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유명 피아니스트인 미라 헤스 (Myra Hess)가 진행하는 인기 점심 콘서트에 눈을 돌렸고 몇 차례 실시된 임시 전시도 즐겼다.



세인트베리관 외부

1975년 북쪽 증축

북쪽 증축관이 1975년에 개관되어 대형 전시실이 9개, 소형 '수납실' 3개로 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신규 전시관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어졌다.

1991년 세인트베리관

1985년에 세인트베리 경과 동생인 사이몬 세인트베리, 티모시 세인트베리가 런던 국립미술관의 새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흔쾌히 합의했다.

미술관 옆 부지가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가구 상점이 파괴된 후 계속 비어 있었다. 새로운 세인트베리관은 1991년에 개관하였고 초기 르네상스 컬렉션 전체를 전시했다.

2004-6년 동관 건축

본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풀게티경 출입구를 지었다. 이를 통해 본관 건물이 처음으로 트라팔가 광장의 거리에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에서는 대 현관 재건에 착수하여 계단 홀에 있는 J.D. 크레이스 천장 장식을 19세기 원형으로 복원하였다.



애너버그 코트와 아래층, 동관

현재

세인트베리관의 완공으로 갤러리 연면적은 46,396m²으로 늘었고 이는 축구 경기장 6개 규모에 달한다. 런던의 2층 버스 2천여 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런던 국립미술관
관장
©

런던 국립미술관 관장

니콜라스 페니 (Nicholas Penny) 박사는 2008년부터 런던 국립미술관 관장직을 맡아 왔다.

그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동 미술관의 르네상스 그림 부문 클로어 큐레이터 역할을 해왔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미술관의 고도시각예술센터에서 앤드류 W. 멜런 교수직을 담당하다가 트라팔가 광장으로 귀환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조소 및 장식 미술 부문 선임 큐레이터 역할을 해왔다.

코틀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만체스터대학교에서 미술사 강의로 교편을 잡기 시작했다. 박물관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은 옥스포드에 있는 애슈몰린 박물관에서 서양미술부 책임자 역할을 맡으면서이다.

니콜라스 페니는 그림과 조소는 물론 미술품 수집과 취향의 역사를 다룬 수많은 책과 글을 집필했다. 전문 카탈로그는 물론 학생을 위한 기초서, 일반 독자를 위한 비평 등도 그가 썼다.



런던 국립미술관에서의 연구

연구에 관한 정보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는 미술관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많은 주요 업무를 보강하는데 유익하다. 갤러리 업무:

- 전시, 전문 카탈로그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
- 그림 관리 및 보존
- 그림의 전시 및 해석

이러한 모든 연구는 런던 국립미술관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훌륭한 컬렉션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게 분석되고 철저히 연구되고 있다.

그림 연구

런던 국립미술관은 13~20세기 초 유럽 그림 연구의 장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작품을 비롯한 소장품 하나 하나에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갤러리가 향후 진행할 조사:

- 그림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제작하였나
- 누가 그림을 의뢰하고 수집하였나
- 그림이 어떻게 이용되었나
-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러한 심층적인 그림 분석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정보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내용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관리

미술관의 보존 부서는 미래 세대들도 현재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큐레이터 및 과학자들과 공동 작업한다. 이들의 업무는 그림의 상태와 미술관 조명,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보존 담당자는 간혹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대규모 복원 작업도 시행한다.

그림 하나 하나를 세척하고 복원하는 작업은 미술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진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한다. 그림 표면을 복원하는 것이 이들 보존 담당자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일이겠지만 그림의 보조 장치 (판과 캔버스) 관리도 그 만큼 중요하다.

보존 담당자는 과학자 및 큐레이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그림에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이들은 또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사용한 기법을 함께 연구하기도 한다.

보존의 과학

그림을 밀접하게 조사하거나 보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현대적인 과학 기술이 항상 중요한 도구가 된다. 소량의 물감 샘플을 성능 좋은 현미경과 화학 분석법으로 연구하면 그림 제작에 사용된 색소와 매체는 물론 층 구조에 관한 정보를 밝혀낼 수 있다.

엑스레이와 적외선 반사 기술로 물감 밑에 있는 초기 작업분을 드러내면 종종 작가들의 최초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 큐레이터, 과학자, 보존 담당자가 진행한 새로운 연구는 이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런던 국립미술관 기술 회보에 매년 실린다.

런던 국립미술관의 학문 역량

런던 국립미술관은 큐레이터, 과학자, 보존 담당자, 기록 보관자로 구성된 전담 팀과의 학문적인 교류를 최초로 시행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미술관의 소장품 카탈로그는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 표준이 되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과학적인 그림 연구를 특별히 전문으로 다루는 기사가 현재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런던 국립미술관 기술 회보에 실리고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날로 번성하는 미술사학자들 모임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 구축으로 유럽 그림 연구 부문에서 국내외 모두 독보적인 존재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외부 제휴 기관과 공동 조직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 프로그램 등에서 우리 전시품을 위한 객원 큐레이터로 일하거나 논문을 제출하는 등 타 기관 학자들과의 교류로 미술관 자체 학문 역량을 풍부하게 쌓고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영국의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와 공학자연과학연구회로부터 독립 연구 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에서의 교육

30여 년 전에 설립된 교육 부서의 프로그램은 런던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이 개인의 창의성 자극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전시물을 이미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옥외 프로그램

작품 접근성을 넓힌다는 전략적 목표에서 폭넓고 다양한 대중의 작품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이해가 쉬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미술관은 노력하고 있다.

미술관의 옥외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옥외 프로젝트는 주요 지역사회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교육 방식을 통해 작품에 접근하기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한계를 겪는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교육한다.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옥외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기존에는 소외감을 느꼈을 사람들이 런던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성인 및 고등교육 과정의 학생

런던 국립미술관의 학습 프로그램은 특히 학사 및 석사 과정 학생을 위해 전시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큐레이터와 예술가와의 대화 시간도 담고 있어 토의 기회는 물론 전시물 관람도 가능하다.

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최근 우리 미술관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드는 학생과 함께 작업하였는데 이 음악을 런던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학교

런던 국립미술관은 능숙하고 숙련된 미술관 교육 담당 교수로 구성된 대규모 팀을 학교에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이 작품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은 교육 과정 전반에서 학습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미술관 방문은 학생들이 그림을 이해하고 예술품 감상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림이 다른 주제는 물론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보여준다.

그림 한 점 갖기 (Take One Picture)

'그림 한 점 갖기 (Take One Picture)'는 런던 국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을 교육 과정 전반에서 교습과 학습의 초점으로 활용하는데 영국의 초등학교를 참여시키는 운동이다. 매년 각기 다른 그림이 탐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선정된다. 1995년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수백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였고 이 중 다수가 연례 행사인 '그림 한 점 갖기' 전시회에 작품을 제출하였다.

성인 교육

미술관을 찾는 성인 관람객을 위한 무료 대담과 투어가 매일 실시된다. 토론, 토의 그룹, 단기 과정, 학습의 날 등을 통해 미술관 그림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무료로 실시되는 점심 토론과 그림 활동에서부터 1일 사생, 판화, 조소 워크숍 등에 이르는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매주 일요일에는 특히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각종 활동이 담긴 가족 일요일 시간이 있다. 5세 미만을 위한 마법의 웅탄자 동화 구연 시간과 5-11세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워크숍은 물론 산책과 오디오 투어도 있다.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쓰는 언어

오디오 가이드

‘60분 투어’

본 투어는 갤러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한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중국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제공된다.

도면

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환영 페이지는 아랍어, 그리스어, 힌디어로 제공된다.

동행 가이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소장품 소개.

국립미술관의 명화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책자.

방문객 가이드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가이드북.

런던 국립미술관에 관한 10가지 독특한 사실



연면적

연면적이 46,369m²로 축구 경기장 6개에 해당한다. 건물의 총 부피는 212,615m³로 런던의 2층 버스 2,156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소장품 규모

2,300여 점의 그림을 소장하고 거의 모든 작품이 한 번씩은 전시를 거쳤다.



방문객 수

연간 5백만여 명이 방문한다. 교육 부서는 연간 8만여 명의 학생을 상대한다.



조소

포르티코 출입구에 있는 조소 작품은 애초에 마블 아치 (Marble Arch)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최초 그림

소장된 작품 중 최초의 그림(NG1)은 세바스티아노 델 피움보의 *라자로의 부활*로 1824년에 들어왔다.

소장된 작품 중 가장 작은 그림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 왕자 (*The Young Pretender*), 미상의 프랑스 화가,
7.6cm x 7cm



미술관에서 가장 큰 그림

귀도 레니의 목동들의 경배, 480cm x 321cm



크기

스텝스의 휘슬재킷은 실물 크기의 말을 묘사하고 있다.



영감

마시스의 늙은 여인의 초상 ('추한 공작부인')은 존 테니얼 (John Tenniel) 경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부인 삽화를 그리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